



2022 EMERiCs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러시아·유라시아 권역

라그만과 카자흐스탄의 생활 물가

조대현

카자흐스탄 제2도시인 알마티(Almaty)에 갈 때마다 꼭 찾는 식당이 있다. 바로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수 요리인 라그만 식당이다. 라그만은 동서로 중국 서부에서 코카서스까지, 남북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러시아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즐기는 요리이다. 그만큼 그 요리법도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토마토, 소고기나 양고기, 달걀, 피망, 양파를 볶은 소스나 국물을 면과 함께 먹는다. 어떤 곳은 라면처럼 움푹한 그릇에 국물을 잔뜩 부어주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간짜장처럼 소스를 따로 줘 비벼 먹게 하는 곳도 있다.

필자가 좋아하는 알마티의 라그만 식당은 수타로 졸깃한 면을 뽑아낸다. 그 식당에 들어서면 탁, 탁하고 면을 치는 소리가 들린다. 수타로 면을 직접

면을 뽑는 것을 보아서 그런지 유독 그 식당의 라그만 면은 두툽하고 졸깃하다. 한국의 우즈벡 식당에서도 라그만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집을 잊지 않고 찾는 이유는 이 집의 별미 찢찢초우멘(丁丁炒麵) 때문이다. 찢찢초우멘은 수타로 뽑아낸 졸깃한 면을 잘게 썰어(丁丁) 볶아낸(炒麵) 것이다. 포크로 파스타처럼 먹는 다른 라그만과 달리 찢찢초우멘은 숟가락으로 퍼 먹는다. 잘게 썬 면을 씹으면 꼭 단단하고 탱탱한 찰옥수수 알을 씹는 느낌이 난다. 토마토, 피망, 고기로 낸 소스는 진하고 살짝 매콤하다.

라그만은 주머니가 가벼웠던 교환학생 시절부터 배부르게 중앙아시아의 풍미를 느끼게 해주었던 요리였다. 교환학생으로 알마티에 있던 2012년



라그만



찢찢초우멘

당시 현지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갔던 번듯한 라그만 전문점의 라그만 가격은 400~500텡게 사이였다. 학교 기숙사의 간이매점에서 팔았던 라그만이 200텡게 정도였으니, 꽤 고급 식당이었던 셈이다. 한국에 귀국한 후에도 종종 우즈벡 식당에 찾아가 라그만을 먹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카자흐스탄 현지 친구들이 소개해준 라그만 전문점의 찐찐초우멘 맛이 떠올랐다.

시간이 흘러 2019년 직장인이 되어서야 7년 만에 다시 알마티를 방문할 수 있었다. 알마티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마음껏 추억의 라그만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라그만 전문점에 방문하였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라그만 가격이 700~800텡게로 두 배나 올랐기 때문이다.

라그만 가격이 두 배나 오른 이유는 텡게의 가치가 지난 7년간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2012년 1텡게의 가치는 한화로 약 8원 정도 수준이었으나, 2014년 2월 5~6원, 2015년 8월 이후에는 4원에서 3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2014년부터 저유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카자흐스탄 정부는 주요 교역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자국 화폐 가치를 낮추자 외화를 확보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텡게의 평가 절하를 단행하였다. 텡게의 가치가 낮아지자 자연히 현지 물가는 올랐다. 텡게 가치가 가장 크게 하락한 2016년 카자흐스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약 15%까지 치솟았으며, 이후에도

연간 인플레이션은 5~7%대를 기록하였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였음에도, 텡게의 가치가 하락하니 원-달러-텡게로 환전을 하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2019년의 카자흐스탄의 물가는 2012년보다 저렴하게 느껴졌다. 앞서 소개한 찐찐초우멘의 2012년과 2019년 가격을 한화로 계산해보면 그 차이를 직접 느낄 수 있다. 2012년 찐찐초우멘의 가격은 500텡게였다. 이를 당시 텡게-원 환율인 1텡게당 약 8원으로 계산해보면, 찐찐초우멘의 원화 가격은 4,000원이다. 필자가 다시 카자흐스탄을 찾은 2019년 찐찐초우멘의 가격은 800텡게로 올라 있었고, 이를 2019년 텡게-원 환율인 1텡게당 약 3원으로 계산해보면 2,400원이 된다. 텡게로는 300텡게가 올랐지만, 원화로는 1,600원이나 저렴해진 것이다.

한편 달러로 텡게를 환전하는 여행자가 아닌 텡게로 벌어 텡게로 생활하는 카자흐스탄 현지인의 입장에서 텡게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가 상승에 맞춰 임금이 상승하면 좋았겠지만, 임금은 물가가 상승한 만큼 충분히 인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최저임금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왔다. 특히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인 2만 8,284텡게에서 4만 2,500텡게로 올랐다. 150%나 인상된 것이다. 2012년 이후 연간 최저임금 상승 폭을 보면 2018년에서 2019년 임금 상승은 이례적인 것이다.

최저임금을 한 번에 대폭 인상한 것을 보면, 그동안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전혀 따라잡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만 같다. 실제로 알마티 인근에 사는 현지 친구는 비싸진 물가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카자흐스탄이 수입하는 고가의 전자제품, 자동차 가격은 예전보다 3, 4배 비싸진 것들도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을 경험하였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카자흐스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간 최대치인 8.9%를 기록하였으며, 식품 가격은 2021년 연초 대비 11.3% 비싸진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 분석 기업인 에너지프롬(Energyprom)은 10월 카자흐스탄의 당근 가격이 연초 대비 48.5% 상승하였으며, 양파와 식용유 가격도 각각 30.2%, 29.5% 올랐다고 발표하였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가뭄, 연료 가격 상승, 텡게 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설명하였다.

2022년 1월 초부터 카자흐스탄 정부가 LPG 상한제를 폐지하자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카자흐스탄의 친구들이 그동안 겪었던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고가 떠올랐다. 그리고 수년간 쌓여왔던 물가, 임금을 비롯한 여러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이 LPG 가격 상한제 폐지를 계기로 반정부 집회로 터져 나온 것처럼 보였다. 높아진 물가를 임금이 따라잡지 못한 상

황에서 자동차 연료인 LPG 가격이 두 배 이상 뛰는 것은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러시아를 비롯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회원국 군대가 평화유지군의 형식으로 카자흐스탄에 파견되면서 반정부 집회는 진압되었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카예프 대통령의 개혁이 구체화되기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카자흐스탄은 또 다른 사회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강력한 대러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경기 침체는 러시아와 긴밀한 상호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카자흐스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대러제재가 발표되자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화와 금 유출을 금지하고, 국민들에게 금 투자를 장려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적인 조치가 텡게로 벌어 텡게로 생활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2022년 3월 말, 알마티의 친구와 통화로 라그만 가격을 확인해보니 라그만 한 그릇의 가격은 900~1000텡게로 올라 있었다. 환산해 보니, 한국 돈으로 약 2,500원 정도이다.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